

해금 이후 10년을 돌아보며

박정규

소설가 · 서울산업대 교수

문학작품이 겪어야 하는 가장 큰 불행은 문학 외적인 요인에 의해 그 존재가 위협받는 것이다. 문학을 제약하는 요인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이데올로기이다. 그것은 대규모의 집단적인 것이며, 맹목적인 것이어서 이성적 판단이 자리할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민족상잔과 20세기 마지막 분단국이라는 아직도 진물 흐르는 상처를 남겨준 이데올로기는 우리 문학사를 반조가리로 만들어 놓았다. 지용의 시구며, 상허의 문장은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국문학사 저서마저 애써 그들의 존재를 외면했고, 혹여 언급을 하는 경우에도 이름자 중 어느 한 글자는 복자로 표기해야 했다. 그렇게 40여년을 지냈다. 그리고 1988년 7월 20일자로 몇 가지 단서조항을 붙여 월·남북 문인들의 작품에 대한 해금이 이뤄졌다.

해금조치가 있는 지 이제 10년, 강산을 변하게 할 만큼의 적잖은 시간이다. 그 십년 동안 동강난 우리 문학사는 과연 얼마나 복원되었는가. 해금 직후, 우리 출판계에는 해금작가들의 작품 출판 붐이 일어났다. 크고 작은 출판사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환상을 안고 다투어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 환상은 참혹하게 깨져 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출판업자들은 우리 독서대중의 독서경향에 대해 몇가지 판단오류를 범했다. 해금문인들이 오랫동안 문학사에서 소외됨으로써 독서대중들은 지적인 감수성이 가장 강렬한 학창시절에 이 작가들의 문학적 명성을 의식 속에 각인시킬 기회를 잃은 것이다.

거기에서 격변기에 40~5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은 문학작품을 연구대상이 아닌 일반 독서물로 삼는 독서대중으로서 극복하기 힘든 난관이었을 것이다. 그 후 해금문인들의 작품 출판 붐은 급격히 냉각되고 말았다. 경제원리에 충실한 출판계의 행태는 일면 당연한 것이되 해금문인들에 대한 학계의 연구 열기마저 함께 냉각되어 버리는 현실에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문학 외적인 요인으로 평가가 유보된 문인에 의해 유난히 빈 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학사가 해금조치로 인해 질곡의 시대를 벗어난 것은 일단 훼손된 문학사의 복원에 긍정적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해금조치가 문학사 복원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은 그 후 10년간의 내세울 것 없는 연구성과가 극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문학사의 복원이 빈칸에 몇몇 문인들의 이름을 끼워 넣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 이전의 일이다. 해금문인들 전반에 걸쳐 개별작품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재평가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대상 문인들의 폭을 넓혀 가능한 한 유실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연구태도는 이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다. 기왕에 알려진 몇몇 문인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표현만 조금씩 바꾼 중복연구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사 목록에 자신의 이름하나 끼워 넣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문학연구자들은 사금채취가가 되어야 한다. 좁쌀알만한 한 알갱이의 금을 채취하기 위해 몇 삼태기의 모래를 일일이 헤집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만 우리 문학사는 제대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

표지 인터뷰	2	학문의 제단에 바친 '서양문학이입사' 연구 《한국현대번역문학사 연구》 펴낸 김병철 교수
기획 취재	4	고사위기 학술출판, 할로찾기에 부심 독자적인 저작권 계약, 인쇄후불제 등 대책마련
출판계 소식	5	한국출판연구소 주최 출판포럼 개최 · 외
특집/스포츠를 읽는다	6	"인간 승리의 감동을 읽는다" 체육계 인사 10인이 뽑은 '스포츠 도서' 정대철/김병충/강석진/이영만/윤득현/ 이보선/이병진/이민주/김병훈/기영노
	11	일본의 스포츠 전문서점 '쇼센 북마트' - 김은지
	12	월드컵, 책으로 즐긴다
	13	'인생의 축소판' 스포츠의 세계
	14	황금알 품은 스포츠 마케팅 · 외
출판포럼	16	서울출판인포럼 조찬회 초청 이혜찬 교육부장관의 대화
논단	17	궁핍한 시대에도 일본문학은 있었다 - 고정일
신간읽기	18	뒤비노 지음 《축제와 문명》을 읽고 - 김열규
학대서평	19	김영한, 임지현 엮음 《서양의 지적운동》(I·II) - 이상신
주제가 있는 책읽기	20	현대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책읽기 - 박세훈
인터넷 출판향해	21	영국의 학술출판사 블랙웰 퍼블리셔 홈페이지 - 오현주
가상대담	22	성리철학 원리 집대성한 율곡과의 대화 - 박신환
만화	23	책과 오대리 - 박시백
이달의 출판광고	24	스포츠에 밀린 출판, 스포츠를 활용한 광고 ㉔
서평	26	진홍섭 《한국불교미술》 - 김영주 이진희·강재언 《한일교류사》 - 하우봉
	27	송민 《중국서예미술》 - 민주식 김상환 외 《매체의 철학》 - 김문환
	28	시어도어 드 배리 《중국의 '자유' 전통》 - 김교빈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 박홍규
	29	마이아 《진화론 논쟁》 - 이성규
이 책 그 사람	30	《목욕하는 여자》 펴낸 박화야씨 《한권으로 보는 한국미술사 101장면》 펴낸 임두빈씨
	31	《박주석의 사진이야기》 펴낸 박주석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다시 보는 사진집	48	㉔ 최민식 《인간》 표지/《한국현대번역문학사 연구》 펴낸 김병철 교수 (사진 한준호)